

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.

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,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-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.

cdedaacef7e6e48be106663e3fd31034dde8c46379d98d19a6a9fea9e8363a00

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,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.

- 주요 뉴스: 미국 경제, 정상화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지체될 전망
 - 미국 백악관, 특별 실업급여 지급은 각 주정부의 판단 하에 연장 가능
 - 미국 뉴욕 연은 설문조사, 노동자 이직 늘어나는 가운데 임금인상 요구도 증가
 - 독일 9월 ZEW 경기기대지수, 26.5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하락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성장둔화 우려 등이 영향
 주가 하락[-0.3%], 달러화 강세[+0.5%], 금리 상승[+5bp]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경제성장이 당초 기대를 하회할 가능성 등이 반영
 유로 Stoxx 600 지수는 이번 주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0.5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매수세 강화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3%, 0.4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 전망 등이 배경
 독일은 공급물량 증가 우려 등으로 7월 중순 이후 최고치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62.8원, +4.4원) 0.4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9/7일	9/6일	전일대비			9/7일	9/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520.0	휴장	-0.34%	국채 금리 10y	미국	1.37%	휴장	5bp
	유럽	472.87	475.19	-0.49%		독일	-0.32%	-0.37%	5bp
	중국	3,676.6	3,621.9	1.51%	CDS 5y	한국	18bp	18bp	0bp
	일본	29,916	29,660	0.86%		중국	33bp	33bp	0bp
	한국	3,187.4	3,203.3	-0.50%	위험 지표	EMBI+	-	348	-
환율	달러지수	92.54	92.04	0.54%		VIX	18.14	휴장	10.54%
	유로화	1.1840	1.1870	-0.25%		WTI유	68.35	휴장	-1.36%
	엔화	110.28	109.86	-0.38%	원자재	구리	427.1	432.6	-1.27%
	위안화	6.4667	6.4582	-0.13%		금	1,794.4	1,823.3	-1.59%
	원화	1,157.8	1,156.5	-0.11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경제, 정상화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지체될 전망

- 그간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백신 접종 효과로 9월 노동절부터 정상화가 시작되고 회복세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. 하지만 델타 변이 여파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기업의 고용 및 투자, 학교 대면수업, 노동자의 노동시장 복귀 등이 지연
- 경제학자들은 델타 변이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겠지만, 노동시장 회복 지체와 수요 감소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을 예상. 8월 신규고용 감소와 미시건대 소비자신뢰 하락 등이 이를 반영
-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차질도 성장을 저해. IHS의 Markit의 Joel Prakken은 경제회복이 진행 중이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되었다고 평가. Oxford Economics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.5%에서 6.0%로 하향 조정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백악관, 특별 실업급여 지급은 각 주정부의 판단 하에 연장 가능

- 사키 대변인은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를 보살펴주어야 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라고 언급. 또한 24개 주정부는 지급을 종료했지만 26개 주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, 각 주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

■ 미국 뉴욕 연은 설문조사, 노동자 이직 늘어나는 가운데 임금인상 요구도 증가

- 설문조사에 따르면, 다수의 노동자들은 향후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임금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. 7월 기준 지난 4개월 동안 실업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.4%로 1년 전(10.5%) 대비 큰 폭으로 하락

■ 유로존 2/4분기 성장률(확정치), 전기비 2.2%로 수정치(2.0%) 대비 상향

- 통계국, 이번 결과는 소비지출의 큰 폭 증가 등에 기인. 가계소비와 정부지출이 각각 GDP의 1.9%p와 0.3%p 증가에 기여

■ 독일 9월 ZEW 경기기대지수, 26.5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하락

- 이번 결과는 전월(40.0) 및 예상치(30.0) 모두 하회. ZEW의 Achim Wambach는 전문가들이 향후 경제성장을 예상하지만 수준은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평가

■ 영국 총리, 의료 및 사회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추진할 계획

- 존슨 총리는 코로나 19 대응으로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노동자, 고용주, 일부 투자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겠다고 발표. 현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. 이에 대해 일부 보수당 의원은 공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

■ 영란은행 정책위원, 2022년 금리인상 단행할 필요

- 손더스 위원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지속 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. 다만 금리가 인상되어도 인상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부연

■ 중국 8월 수출, 전년동월비 25.6% 늘어 전월(19.3%) 및 예상치(17.1%) 모두 상회

- 이번 결과는 국내 코로나 19 감염과 공급병목 등의 여파를 글로벌 수요 호조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상쇄했기 때문으로 평가. 같은 달 수입도 33.1% 증가하여 전월(28.1%) 및 예상치(26.8%) 상회. 무역수지는 583억달러 흑자 기록
- Oxford Economics의 Louis Kuijs는 단기적으로 역풍이 존재하지만 공급망 차질은 개선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속은 중국 수출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진단

■ FIM Partners, 신흥국 투자는 테이퍼링보다 성장 둔화가 더 심각한 위험 요인

- Francesc Balcells 최고투자책임자(CIO)는 델타 변이 확산과 향후 재정지출 감소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이 신흥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. 또한 장기 채권 투자비중이 높지 않아 테이퍼링 위험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첨언

■ 호주 중앙은행, 시장 예상대로 채권매입을 축소. 기준금리는 동결

- 통화정책회의, 매주 채권매입 규모를 40억호주달러로 결정하여 이전보다 10억호주달러 줄였으며 채권매입은 내년 2월까지 지속할 방침. 이번 결정은 백신 접종과 봉쇄조치 완화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9/7 현지시각 기준)

- 독일 7월 산업생산(전월비): 1.0%, 6월(-1.3%), 예상치(0.7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9/8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7월 JOLTS 구인광고건수, 일본 2/4분기 성장률, 7월 재정수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중국 주택 수요규제, 장기간 지속 시 성장과 금융안정에 위협요소 - WSJ

(What if China's Property Crackdown Goes Overboard Too?)

- 중국에서는 첨단 기술기업 규제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, 정부의 공동번영 의지를 반영해 주택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기조가 강한 편. 그 결과, 주요 도시의 주택거래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
- 하지만 주택가격과 중국경제의 높은 연관성이 문제.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소비와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. 이러한 경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부실이 커질 가능성도 내재

■ ECB,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매입 속도 조절은 불필요 - Financial Times

(ECB still needs to put theory into practice)

- ECB는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2% 물가목표의 일시적 상회를 용인하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 설정.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자산매입 속도 조절 논의 진행
- 내년 3월 종료 예정인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(PEPP)의 규모가 축소될 경우 시장에서는 이를 테이퍼링 시그널로 오해하여, 금융여건 긴축으로 이어질 소지
- 유로존 인플레이션 전망은 여전히 낮고, 기존 자산매입프로그램(APP)은 중기 경제 전망에 기반함을 감안할 때, PEPP 축소 시 APP를 증액해 시장의 오해를 불식할 필요

■ 중국 시진핑의 공동번영, 경제 성장 및 고소득 국가로 도약을 제한할 가능성 - 블룸버그

(Xi Jinping May Be Leading China Into a Trap)

■ 다자개발은행(MDB), 자본 요건 등 규정 완화로 대출능력 확대가 요구 - Financial Times

(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can do more to aid the recovery)

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인정, 기술적 결함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 - 블룸버그

(Biggest Test in Bitcoin's 12-Year History Has a Rocky Start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ikyoon@kcif.or.kr